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97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

- 아마미 오시마의 대자연 그리고 전통의 울림을 찾아서 Part.2

2 지사 관련 새 소식

- 차이나 에어라인 일본지사가 방문하였습니다(4 월 3 일)
- 츠쿠바 과학 기술 일본 지점 개소식에 출석하였습니다(4 월 15 일)

3 가고시마 관광 정보

- 사쿠라지마 예술 불꽃놀이 2025 (4 월 26 일)
- 시부시 석가 축제 (4 월 28 일~ 29 일)

국제교류원의 칼럼

●아마미 오시마의 대자연 그리고 전통의 울림을 찾아서 Part.2●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중국출신)-

3 일 째는 아마미 박물관, 아마미 해양전시관, 아마미 야생생물 보호센터, 아마미 관광 하브센터를 방문하여 아마미 역사, 문화, 자연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미 박물관은 아마미군도 유일 종합 박물관으로서 볼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입장하여 1 층 홀에서 아마미의 자연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신비한 해저 미스테리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기하학적인 모양은 아마미군도 앞바다 해저에서 발견되어 「해저 미스테리 서클」로 약 20 년전부터 알려져왔습니다만, 누구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1 년 수중 사진가 오카타 요우지가 이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작은 복어를 촬영하는데 성공하여,



호시조라후구가 만들어낸 해저 미스테리서클

아마미 호시조라후구 수컷이 암컷에게 어필하기위해 정교하게 만드는 산란 둥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층에서는 『남도잡화(南島雜話)』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막부 말기 즈음 아마미 오시마 생활의 삽화들이 전시되어 있어 아마미의 근대사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3 층은 아마미 오시마에 사는 사람들의 1 년을 자연의 변화에 착안하여 월별로 정리하여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미 박물관 자료 전시를 통해 아마미의 문화는 일본 문화에 기반하여 류큐와 사츠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미 해양전시관은 수족관처럼 아마미의 바다 생물인 산호의 생태, 바다거북, 새우, 게, 물고기, 조개를 볼 수 있으며 산호나 모래, 껍질을 이용해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조개껍질로 만든 공예품

전시관 밖 텐트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고 근처의 오하마 해변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오하마 해변공원

그 후, 아마미 야생동물 보고 센터에 갔습니다. 보호 센터에서는 아마미 군도의 곤충이나 조수(鳥獸)의 표본 전시와 함께 아마미의 귀중한 생물의 보호 증식 사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미 몽구스 방제사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몽구스는 원래 중동과 남아시아에 생식하는 포유류로 1910 년에 하브(아마미 군도에 서식하는 독사)를 박멸하기 위해 인도에서 오키나와에



검은 멧토끼의 복제품



필리핀 망구스의 복제품

들었습니다. 아마미군도에는 1979 년 오키나와에서 들여온 수십마리를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구스는 하브의 천적이 되는 대신 아마미검은멧토끼 등 아마미오시마에 사는 많은 동물을 포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환경성은 2000 년부터 본격적으로 몽구스

방제에 착수하여 2005년에는 아마미에서 몽구스 완전 방제를 목표로 외래생물법에 기초하여 방제 사업을 진행시켰고, 2024년 9월에 근절이 선언하였습니다. 아마미의 풍부한 자연과 귀중한 야생동물을 미래로 전하기 위한 노력이 아마미 야생생물 보호 센터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센터견학 후 근처의 야마토하마의 보레구라(群倉)를 견학하였습니다. 아마미에는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독특한 목조 건축인 다카쿠라(高倉)가 있습니다. 다카쿠라는 탈곡한 벼나 다음해에 사용하는 볍씨를 쥐와 습기, 태양열로부터 지키고



야마토하마의 보레구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다카쿠라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여러 동 지어 놓은 것을 보레구라라고 합니다. 야마토하마의 보레구라는 2004년 가고시마현 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관찰의 숲의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

마지막 날에는 먼저 아마미 자연관찰의 숲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마미 자연 관찰의 숲 안은 산책길이 정비되어 있어 무성한 아열대 숲 속에서 새, 개구리 등 수 많은 생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안개에 둘러싸인 먼 산들이 수목화 같이 보였습니다. 더욱이 에메랄드 색 바다에 둘러쌓여 마치 선경(仙境)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 오시마 츠무기 마을에도 들렸습니다. 오시마 츠무기 마을은 남국의 아열대 식물 정원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미 오시마 츠무기의 제조 현장을 견학하거나, 진흙 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가 견학하고 있는 도중 외국인 관광객들이 차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오미사 츠무기 관련 시설이나 상점가에서는 기모노 이외에도 모자, 파우치, 가방, 넥타이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오시마 츠무기 이외에도 오리지널 고급 오시마 츠무기나 츠무기 잡화 상품, 기념품 등 다양한 오시마 츠무기 관련 상품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못에서 진흙 염색을 하고 있는 장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츠무기 보존관



진흙염색 공정을 통역하고 있는 고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요우안 해변의 테라스석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섬 염소탕 카레를 먹었습니다. 염소 고기가 카레와 절묘하게 어울렸고, 레스토랑의 위치도 아주 맘에 들어 만족스러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시마 츠무기의 베를 소리가 몇 백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공방에서 울려퍼지고 있듯이 아마미에서 느낀 부드러우면서 강한 생명의 조화가 제 가슴 속에서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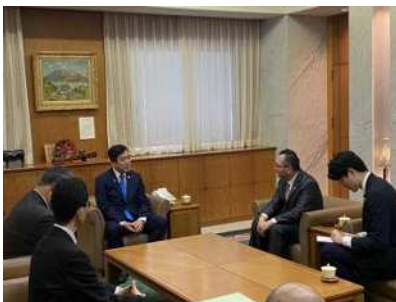
5 월말을 끝으로 중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 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가고시마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1 년이었습니다. 국제교류원 근무를 마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고시마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사의 움직임

●차이나 에어라인 일본지사가 방문하였습니다.(4 월 3 일)●

차이나 에어라인 정기편 증편과 관련하여 차이나 에어라인 일본지사장 리이쥬(李宜洲) 씨, 마케팅부 부장 상위청(向禹丞) 씨 및 구마모토 지점장 귀샤오시엔(郭紹賢) 씨가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오타지사는 4 월 3 일부터 가고시마-타이페이선 정기편의 증편에 대한 감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노선의 안정적 운항 및 이용촉진, 추가적인 증편을 위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은 이번 증편을 통해 앞으로도 대만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여행 수요에 활기를 불어 넣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모습



▲차이나 에어라인 일본지사장과 함께

●츠크바 과학기술 일본 지점 개소식에 출석하였습니다. (4 월 15 일)●

이즈미시에서 츠크바 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 일본지점 개소식이 개최되어 내빈으로서 시오타지사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츠크바 과학기술(筑波科技)은 반도체나 광통신 등 기술 통합에 힘쓰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기업이며, 이번에 일본 처음으로 지점을 이즈미시에 개설하였습니다. 시오타지사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연결고리가 깊은 대만과 규슈, 가고시마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대만 핑둥현과 MOU의 체결 등 가고시마현 차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역, 투자, 교류 등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가고시마현은 앞으로도 각 시정촌들과 함께 우리현의 국내외 기업의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츠크바 과학기술 일본지점의 여러분들과



◀ 인사하는 모습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사쿠라지마와 예술 불꽃놀이 2025 (4 월 26 일) ●

우리현의 상징인 웅대한 사쿠라지마와 긴코만의 잔잔한 바다와 예술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불꽃놀이가 마린포트 가고시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술 불꽃놀이란 내각 총리 대신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봉의 불꽃놀이 장인들이 예술적으로 불꽃놀이를 구성하고 음악의 리듬이나 곡조에 맞춰 면밀한 프로그래밍을 한 불꽃놀이로 회장의 위치, 지역을 포함시키는 대담한 연출이 돋보이며, 고도의 기술로 종래의 불꽃놀이를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 불꽃놀이의 모습

●시부시 석가 축제(4 월 28 일 ~ 29 일)●

가고시마현의 3 대축제 중 하나로 에도시대부터 행해지고 있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축제는, 석가상에 나이만큼 감차(甘茶)를 뿌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신혼부부의 신부를 태워 상상우마(장식을 단 말)행렬이나, 춤을 추는 행렬, 어린이 행렬, 센켄초 시장 등 화려한 퍼레이드가 열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축제입니다.



▲ 신랑신부의 상상우마 행렬의 모습
「© K. P. V. B」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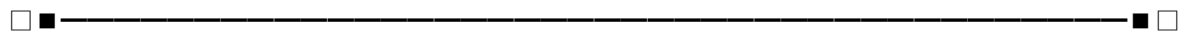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벚꽃 시즌이 눈 깜짝할 새에 끝나고 신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산뜻한 계절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곧 장마,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지금 기분 좋은 시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국제교류과의 중국 출신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씨는 임기만료를 맞아 귀국하였습니다. 토우씨는 작년 4 월부터 가고시마현청에서 근무하였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밝고 명랑한 그녀의 성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주었고 토우 씨 덕분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국제교류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돌아간 뒤에도 가고시마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건강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